



한국아나운서클럽회보

2020년 6월 15일

제 38 호

• 발행인 : 차인태 • 편집장 : 황인우
• 편집인 : 김규홍 김창욱 유지현
윤지영 이현우 채영신
• 주 소 : 06544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119-1102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아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10-9025-4663, 070-7501-3842

코로나19 재확산세로 클럽 2분기 모임 또 연기 제6회 황금메아리상 시상식도 추후에 열기로



(사)한국아나운서클럽 차인태(전 MBC) 회장

아나운서클럽이 지난 3월 총회에 이어 6월 모임을 다시 연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6월 정례 모임에서 개최하는 황금메아리상 시상식도 순연되었다.

(사)한국아나운서클럽(회장 차인태)은 지난 5월 30일 저녁, 단체 카톡방을 통해 모임 취소를 긴급 공지하고, 각자 위생에 유념하며 건강 관리를 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이 이어져 5월 29일부터 수도권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모임 장소인 여의도 흥우빌딩 학원가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오랜만에 반가운 모임을 기대했던 회원들은 모임 연기 소식에 아쉬워하면서도 타당한 조치라며 다음 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제6회 황금메아리상 수상자

KBS 백승주 <FM풍류마을> MBC 김정근 <실화탐사대>

제6회 '황금메아리'의 주인공이 결정되었다.

황금메아리상운영위원회는 올해 수상자로 KBS <FM풍류마을> 백승주, MBC <실화탐사대> 김정근 아나운서를 선정해 5월 21일 발표했다.

라디오 부문 KBS 백승주 아나운서는 2013년부터 <FM풍류마을>을 진행하며 우리 음악과 생소한 청취자를 국악의 유장한 세계로 이끌고 있다. TV 부문 MBC 김정근 아나운서는 2018년부터 <실화탐사대>를 맡아 개그맨 신동엽, 강다솜 아나운서와 함께 진짜 이야기의 내면을 따뜻한 시선으로 전하고 있다. 6월 정례 모임일에 열리는 시상식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인해 추후에 개최할 예정이다.

'황금메아리상'은 아나운서클럽이 첫 여성 회장인 제8대 임국희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2015년 제정했다.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아나운서의 전통을 이어가는 남, 녀 아나운서에게 시상한다. 좋은 방송을 진행해 아나운서의 위상을 높이는 후배에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 - 황금 메아리를 퍼뜨리길 축원하며 격려하는 상이다.

제1회 SBS <마음은 언제나 청춘> 유영미, KBS <황금 연못> 김홍성을 비롯해, 제2회 CBS <이명희의 랄랄라> 이명희, OBS <OBS초대석> 홍원기, 제3회 TBS <송정애의 좋은 사람들> 송정애, KBS <아침마당> 윤인구·오유경, 제4회 cpbc <라디오 성경> 박성호, MBC <오늘 아침> 신동진·이재은, 제5회 febc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 KBS <저녁리듬 토크쇼 J> 정세진 아나운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백승주



김정근

수상 소감 제2면

아나운서 출신 4명 전원, 제21대 국회 입성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박성준 한준호 미래통합당 배현진

아나운서 출신 4명 전원이 제21대 국회에 입성했다.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고민정, 박성준, 한준호, 배현진 등 아나운서 출신들이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는 서울 광진 을에서 50.37%를 득표해 47.82%를 기록한 서울시장 출신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제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후보는 서울 중구·성동구 을에서 51.96%로 당선되었다. 현역 의원인 미래통합당 지상욱 후보는 47.27%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후보는 경기 고양 을에서 52.4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반면 미래통합당 함경우 후보는 35.76%에 그쳤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는 2018년 재보궐선거에 이어 서울 송파 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맞붙어 50.46%를 얻음으로써 46.04%을 얻은 최 의원에게 설욕했다.



고민정



박성준



한준호



배현진

그동안 아나운서 출신 정치인들은 친숙한 이미지와 바른 언행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모았다.

변용전 회원은 1963년 KBS에 이어 1970년 MBC에서 활약하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연합 소속으로 입후보해 당선되었다. 이어 제16대 전국구, 제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당선되었고 2011년 당 대표를 지냈다. 박용호 회원은 1968년 KBS 입사,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었고, 이계진 회원은 1973년 KBS 입사, 1990년 SBS 이직 후 2004년 한나라당 후보로 제17대 국회에 진출해 2선을 기록했다.

박영선 회원은 1983년 MBC 입사, 2004년 열린우리당 대변인으로 발탁되어 제17대부터 4선을 한 중진으로 2019년 4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한선교 회원은 1984년 MBC 입사, 1995년 프리랜서로 활약하다 2004년 제17대 국회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4선을 기록했으며 미래한국당 대표를 지냈다.

박찬숙 회원은 1968년 KBS 입사,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고, 1977년 MBC에 입사한 박선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다. 유정현 회원은 1993년 SBS에 입사,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나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배현진 외 3인 당선 소감 제3면

코로나19 속 아나운서들의 미담 이어져

tbs 아나운서 2019장기범상 상금으로 의료진 마스크 전달, MBC 손정은 어린이재활병원에 성금 기부



tbs교통방송 아나운서들이 지난 3월 말, 2019한국아나운서대상 장기범상 수상 상금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의료진에게 보냈다. 정윤주 아나운서는 "대선배님의 뜻을 기려 상금도 의미 있게 쓰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차인태 회장은 "아나운서 모든 분이 자랑스럽다. 코로나19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전우벽 회원은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갖게 하는 살맛나는 소식이다."라고 격려했다.



MBC 손정은 아나운서는 6월 2일, 푸르메 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식당 향균 간막이 설치용 성금을 전달했다. 손 아나운서는 2016년 MBC 임직원 자원봉사단 '다정한 친구들'을 통해 푸르메 어린이재활병원과 인연을 맺은 후 장애 어린이들을 위해 구연동화 시연, 레고 놀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지난해에는 부친 조의금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다.

황금메아리상 수상 소감

제6회 황금메아리상 수상자

KBS 백승주

클래식FM <FM풍류마을>
(FM 93.1, 매일 17:00 ~ 18:00)

백승주 아나운서는 TV <KBS 아침뉴스타임> 앵커로 아침을 열고, <FM 풍류마을>로 저녁 시간 감성을 나누는 라디오 진행자로 활약 중이다. <FM풍류마을>은 우리 음악으로 이끄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국악 프로그램이다. 공기처럼 우리 곁을 맴도는 국악의 생생한 숨소리를 제대로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백승주 아나운서가 2013년부터 8년째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백승주 아나운서는 경북 포항 구룡포 출신으로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독어독문학과, 한양대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를 받았다. 2001년 삼척 MBC를 거쳐 2003년 공채 29기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그동안 차분하고 단아한 이미지로 <책 읽는 사람들> <백승주의 3시와 5시 사이> <라디오 책방> <상상플러스> <과학 카페> <영화가 좋다> <사랑의 리퀘스트> 등을 진행했고, 아나운서실 TV팀장을 맡고 있다. 한국의 국어대학교에 출강했으며, 제20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식에서 TV프로그램 진행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MBC 김정근

<실화탐사대>
(MBC TV 수 10:05 ~ 10:55)

<실화탐사대>는 변화 무쌍한 세상 속에서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진짜 이야기'를 찾는 본격 실화 탐사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아동학대, 양육비 미지급 등의 이야기로 대중이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다양한 사건, 사고의 이면도 전함으로써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김정근 아나운서는 2004년 입사해 <생방송 화제집중> <생방송 오늘저녁> <원더풀 금요일> <기분 좋은 날>의 MC를 맡았고 <스포츠뉴스> <주말 정오 뉴스> 앵커, 그리고 올림픽, 월드컵 등에서 스포츠캐스터로 활약했다. 그리고 2017년 장기 파업으로 인해 퇴사해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2018년 재입사해 화제를 모았다. 아나운서연합회에서 2010년 스포츠캐스터상, 2019년 TV 교양 부문 진행자상을 받았다.

가장 세계적인 우리 음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



우리 음악이라고 하면 아직도 낯설고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쩌면, 첫 만남이 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짧은 시간 속에서는 그 매력을 다 전할 수 없는 심오한 음악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가는 사람이 있듯이, 숨결을 주고받도록 가까이 마주 앉아보면, 다정함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음악에 심취한 지 8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방송을 시작할 때, 시 한 편을 접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눈물콧물 다 훔쳐 주는 어머니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의 감성으로 매일 청취자와 함께하면서 저 또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공감하고 성장하라고 이 '황금메아리상'을 주신 것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다시 차분히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신 선배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늘 한결같이 <FM 풍류마을>과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모임은 추후에 공지하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기다림과 반가움으로 전해지길!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고 아나운서의 꿈을 키웠고 방송을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방송인으로서 저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귀한 상을 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의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메아리가 만약 황금이라면

사람들은 그 황금 메아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갖고 싶을까? 만약 방송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이 누군가에게 그런 기다림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방송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혹은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목소리와 얼굴을 지니게 될까?

선배님들이 이 상을 주신 것은 아마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더 나은 방송인이 되라는 격려와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 환경이 다변화되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서는 시대에 아나운서란 이름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고민이 더 깊어집니다. 그럴수록 초심을 생각하게 되고 이 길을 먼저 걸었던 많은 선배님들이 해주셨던 이야기와 진행하셨던 수많은 방송을 떠올리게 됩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고심하면서 방송인으로서 품격과 자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던 그 모습에 여전히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가 되었을 때 가슴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미소짓게 하고 싶다는 소박한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상을 받고 다시 다짐해봅니다. 내 마음과 얼굴이 진심이면 그 메아리는 누군가에게 기다림과 반가움으로 전달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다시 새기게 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더 진실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당선 소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 을

국회의원 배지를 받는 순간 당선됐다는 기분보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척이나 무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금은 사무실을 꾸리고,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KBS 아나운서 생활 14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희망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며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한민국을 대변하며 국민과 소통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소통에 체온을 더해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4년 뒤,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소통을 참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나운서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품격과 신뢰의 언어로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공감받지 못하는 정치, 불통의 정치를 '국민 눈높이 정치'로 바꾸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약력: 1979년 서울 출생 경희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중국어 전공

2004년 4월 ~ 2017년 1월 KBS 아나운서 (30기)

2017년 3월 ~ 2017년 5월 제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2017년 6월 ~ 2019년 4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

2019년 4월 ~ 2020년 1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2020년 2월 ~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대변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 을

우선 이번 총선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서울시 중구와 성동구의 금호동, 옥수동 주민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바이러스의 확산과 그로 인한 경제 위기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이 민주당에 보내주신 높은 지지는 하나 된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라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으로 인식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제가 내세운 슬로건이 'TV 속 사건 반장에서 서민 속 삶의 반장으로'였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아나운서로서 방송과 시청자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국회의원으로 국민 삶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는 반장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으로서 국민과 민주당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에도 충실하겠습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많은 아나운서 출신들이 당선됐습니다. 아나운서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자유로 우면서 국민 신뢰에 부합하는 언론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파를 넘어 그간 아나운서 출신 선배님들이 걸어왔던 것처럼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에 눈을 맞추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약력: 1968년 충남 금산 출생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충남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1996년 KBS대전 아나운서 (공채 23기)

2011년 ~ 2020년 1월 JTBC 아나운서

2020년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 을

'고양의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고양 시민의 말을 경청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번 총선 슬로건이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인사드리고 이야기를 경청해보자는 마음으로 매일 5만 보를 걸었고, 압도적 승리라는 결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들뜬 마음보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차분하게 주어진 일들을 해결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바르게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언론인의 덕목이자 정치인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눈, 귀, 입이 되어야 합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민의에 귀 기울이고, 입안하고, 정책으로 만드는 일에 소홀함 없도록 소통하겠습니다.

필요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권위적 배분이 아닌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 당하지 않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상실'도 하나의 언어라고 합니다. CNN 앵커 앤더슨 쿠퍼의 말입니다. 언어를 다룬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상실과 소외를 느끼는 분들의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1호 법안으로 차량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태호 엄마' 이소현 씨의 뜻을 이은 <어린이 생명안전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총리실 산하 '어린이안전처'를 설치해 어린이 안전의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래 세대가 한 명의 낙오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4년의 임기 동안 밑그림을 그려가겠습니다. 아울러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독립과 미디어 산업 진흥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앞에 겸손하고, 정치 앞에 당당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약력: 1974년, 전북 전주 출생 연세대 수학과·생활디자인학과 복수 전공 가톨릭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졸업(한류MBA 석사)

데이콤st 사원, 코스닥증권시장(현 한국거래소) 대리

2003년 ~ 2018년 MBC 공채 아나운서

2018년 ~ 2019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전문위원

제37호 오보 정정 -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 제21대 총선 경기도 파주 을 선거구 후보 경선에서 탈락

제37호 제1면, 제21대 총선 기사에서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의 경기도 파주 을 선거구 출마는 오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3월 13일 후보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기 이전에 조판하며 빚어진 실수로, 오보를 게재한 것에 대해 사과드리며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회 | 원 | 동 | 정

전응덕(전 MBC) 고문

KBS 4.19 60주년 특집 역사적 증언 인터뷰



4·19혁명 증언 인터뷰가 4월 19일 오후 8시 KBS 1TV 4·19혁명 60주년 특집 <4.19세대의 증언 4월의 합성-역사를 바꾸다>에서 방송되었다.

1954년 KBS부산 아나운서로 입사한 전응덕 고문은 1959년 최초의 민간 상업방송인 부산MBC가 출범하며 아나운서실장 겸 보도과장으로 이직해, 1960년 마산에서 3.15 부정 선거 규탄 학생 시위를 중계함으로써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 데모 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한 공로로 2010년 4월 19일 건국포장을 받았다.

송재익(전 MBC)

조선일보 주말판 전면 인터뷰 기사 게재



지난 시즌부터 프로축구연맹이 자체 제작하는 K 리그 경기를 중계하며 5월 28일 KBS 9시 뉴스에 '노장의 귀환'으로 소개된데 이어 5월 29일 국민일보, 6월 6일 조선일보에 전면 인터뷰가 실렸다.

1970년 MBC에서 복싱 중계를 시작, 2002년 월드컵 때 SBS로 이직한 송 회원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부터 2006년 독일 월드컵까지 6연속 월드컵 본선 경기를 현지 중계 방송했다. 특히 1997년 '도쿄 대첩' (98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한일전)에서 이민성의 역전 결승골 때 외친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를 비롯한 수많은 어록을 남겼다.

박용호(전 KBS)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 출연



6월 22일 TV조선에서 밤 11시에 방송되는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은퇴 후 고향 강화에서 지내는 귀농 생활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는 장남 박태원(KBS) 아나운서를 비롯해 이규향, 손범수, 최은경 아나운서도 출연했다.

박 회원은 1969년 입사해 아나운서실장을 지내고 퇴직, 2000년 총선 인천 서구·강화군 을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을 지냈다.

최창섭(전 MBC)

CGN TV에서 <교회 용어 바로잡기> 방송



4월 13일부터 기독교 CGN TV에서 정오 뉴스 후 100초간 방송되고 자정에 재방송되는 <교회 용어 바로잡기>를 방송하고 있다.

최 회원은 성경 녹음 MP3 무료 배포, 성경일독 팟캐스트 운영, 영어 성경 지도, 성경 쉽게 고쳐 쓰기 등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

분당모임

고 배덕환 회원 부인 우인옥 여사 함께해



회원 전원이 참석한 5월 12일 모임에 지난 4월 4일 세상을 떠난 고 배덕환 회원의 부인 우인옥 여사가 함께했다. 회원들의 위로 인사해 우인옥 여사는 부군의 장례에 도움을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상준, 김규홍, 조길자, 박민정, 송현식, 이계진, 최평웅, 맹관영, 윤영중, 박종세, 황우겸, 우인옥, 민병연

문무일(전 MBC)

유튜브 와이TV <오늘도 한마디> 칼럼리스트 활동



오피니언 중심 인터넷 신문 와이타임즈에서 8개월째 유튜브 와이TV 칼럼 <문무일의 오늘도 한마디>를 진행하고 있다.

1968년 방송에 입문한 문 회원은 1988년 미국으로 이민 가 워싱턴동양방송을 설립해 20년간 운영하다 8년 전 귀국해,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26일 이화장에서 이승만 탄신 145주년 기념식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7월 19일 이 박사 서거 55주년 추모 행사와 아울러 7월 30일 건국 이념 재평가를 위한 신뢰포럼도 준비 중이다.

김병래(전 KBS)

동아연합신문 주최 방송 부문 대상 수상



일본 오사카에 본사가 있는 동아연합신문사 창간 75주년 기념 행사에서 방송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부산에서 35여 년간의 아나운서 생활에서 특히 야구 중계방송 등 스포츠 중계방송에 힘썼고 퇴임 후에도 각종 행사 사회와 왕성한 문화 활동을 펼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 3월 21일 부산일보사 강당에서 열 예정이던 시상식은 코로나로 연기되어 5월 15일 부산윤슬문화예술원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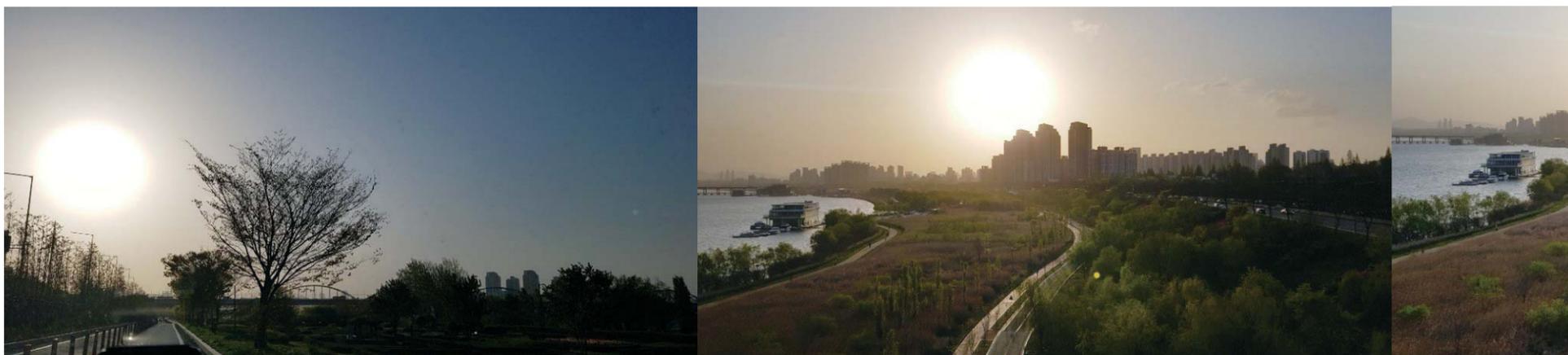
백연숙(전 MBC) 운영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영국에서 조기 귀국



코로나19로 인해 영국 체류 일정을 앞당겨 4월 중순에 귀국해, 6명의 식구가 4월 말까지 자가 격리 후 일상에 복귀했다. 아들의 캠브리지대 교환교수 발령을 계기로 1년간 영국에서 지낼 예정이었기에 비워둔 집안 정돈과 가져온 짐을 정리하며, 클럽 모임을 기대하고 있다.

사진작가 박찬숙 전 부회장의 일상 사진 중 <여명> 2020.04.22, 용산가족공원



이숙영(전 KBS) 운영위원

tbn 오후 8시 <이숙영의 탄탄대로> 생방송



4월 20일부터 tbn교통방송에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되는 <이숙영의 탄탄대로>를 맡았다. 1996년부터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SBS 파워FM에서 <이숙영의 러브FM>을 진행하는 이숙영 운영위원은 지난 3월 11일,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보여주어 큰 호응을 받았다.

이금희(전 KBS)

희망브리지 캠페인 영상 내레이션 재능기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주관하는 재난·지해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한 캠페인 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이 회원은 내레이션 재능기부를 통해 재해의 아픔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웃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지애(전 KBS)

6·25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 재능기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육군이 주관하는 '6·25 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 정책 광고 영상에 재능기부로 출연했다.

2006년 입사한 이 회원은 방송사 시험을 준비하며 여군장교도 지원했던 인연으로

MBC<진짜 사나이-여군 특집>에 출연한 적이 있다.

오유경(전 KBS)

유튜브 <오유경TV> 개설, 5개월 제주 살다 귀경



2개월 전 유튜브 <오유경TV>를 개설, '사진작가 직업 탐구-이진수 사진작가의 백건우 윤정희 부부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 등 동영상 20개를 올렸다. 오유경 회원은 올 1월 퇴사 후 제주에서 5개월간 국제학교 졸업을 앞둔 아들을 뒷바라지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윤지영(전 SBS) 편집위원

경기도 안산에 사무실 겸 녹화 스튜디오 마련



코로나19로 인해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맡고 있는 '방송화법' 강의를 비대면 非對面 강의로 준비하며 경기도 안산시 안산 중앙역 부근에 사무실 겸 스튜디오를 마련했다. 동영상 촬영이 용이하도록 조명, 크로마키 등을 갖추고 클럽 회원에게는 언제나 개방하겠다고 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문복순(전 KBS) 향년 87세로 4월 2일 소천



KBS 원로 여자 선배님들 모임에서 처음 뵈었던 귀부인, 기품 있던 선배님을 추모합니다. 깔끔하고 멋진 대선배님께서 가시다니 안타깝습니다. 고통 없는 곳에서 편히 쉬세요. 하늘나라로 가시면 더 큰 우주를 만나시는 건가요.

선배님은 이화여대 심리학과 졸업 후 1957년부터 1963년까지 KBS 아나운서로 활약하며 <희망음악회> <명상의 시간> <자유의 메아리>를 진행했고, 명작 연속 낭독과 1960년 최초의 명동성당 성탄 미사 중계를 맡으셨지요. 1959년 유명한 치과 의사와 혼인, MC 이기상 한국방송진행자연합 회장이 셋째 아드님, 가수 이은미 씨가 둘째 며느님으로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개성여고 동창회, 가톨릭 관련 봉사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며 베푸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배울 길동무를 찾기 힘들어 맘으로만 추모할까 하다가, 그래도 그 고운 모습을 기억하며 꼭 인사를 드리고 싶어 글을 나섰습니다. 덕분에 경기도 수지구 저희 집에서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까지 그날따라 차가 막혀 3시간 넘게 운전하며 인생을 되돌아보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배님의 명복을 빌며 남은 우리들, 아니 지구인 모두에게 평안을 안겨주십사 기도드렸습니다. 부디 훨훨 날아 우주에서 본 아름다운 지구를 온전히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글 / 박민정(전 MBC) 감사

고 배덕환(전 KBS) 향년 88세로 4월 9일 소천



늘 따듯한 미소와, 후배 사랑이 남달랐던 배덕환 선배님! 지난해 위장에 탈이 나셨는데,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송파 잠실이 고향이라 나룻배 타고 서울로 유학 하였고, 축구, 배구, 농구 등 못 하는 운동이 없으셨지요. 6.25 때 17세에 학도병으로 참전해 경남 진주까지 걸어가서 훈련받고, 3년 동안 여러 전투에 참전한 6.25 공로자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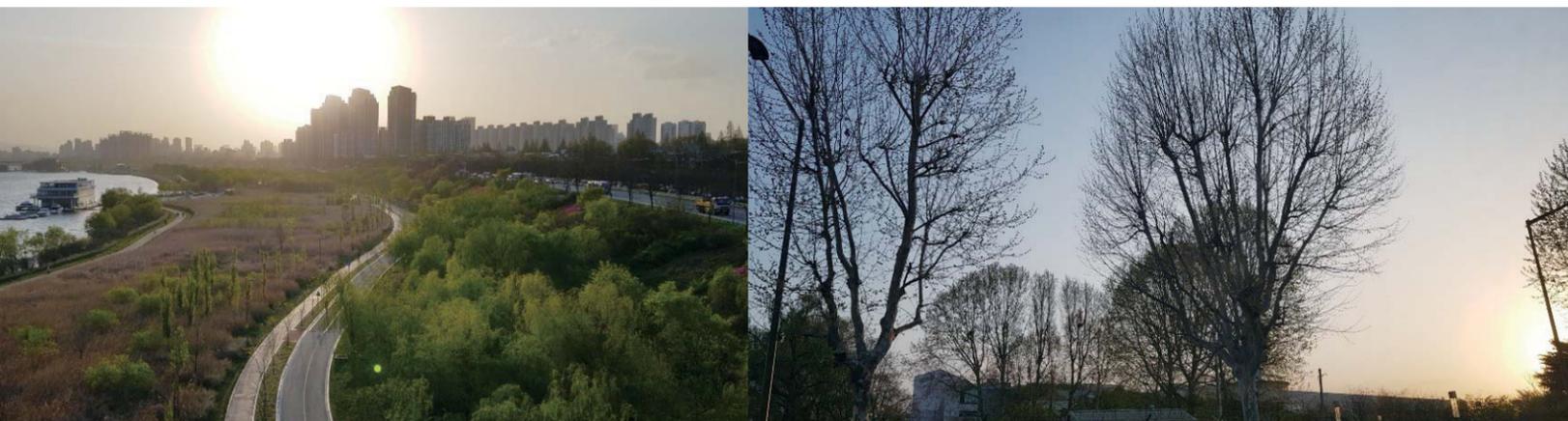
1961년에 남산 중앙방송국 아나운서가 되시고, 남다른 세심함과 친화력으로 아나운서 모임 초대 총무로 활약하시다가 호주로 이민 가셨지요.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는, 2시간 전철 타고, 달링하며 유도 경기장에 응원 오셔서, 메달 따는 것도 보시고, 덕분에 저도 매일 선배님을 만나 뵈 수 있었습니다.

20년 가까운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신 후에도 클럽 모임에 빠짐없이 출석하며 모두에게 다정하셨던 큰 형님과 큰 오빠 역할을 하셨지요. 가톨릭 신자로서도 모범을 보인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대추나무처럼 단단하셔서, 백수白壽를 누릴 줄 알았습니다. 늘 넘치지 않고, 인자하셨던 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이 잠드소서.

글 / 이세진(전 KBS)

강렬한 오늘 새벽 태양처럼 힘차게!



박찬숙(전 KBS)



방 | 송 | 가 | 소 | 식



정세진, <시사기획 창 스페셜 다큐톡> 진행



정세진 아나운서가 5월 23일 첫 방송된 <시사기획 창 스페셜 다큐톡>을 맡았다. 한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 팀이 주장을 내놓으면 MC가 패널과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하며 논거를 분석하는, 다큐멘터리와 유튜브 토크쇼를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그만큼 중요한 상황에서, 그동안 <KBS 9시 뉴스>, <저널리즘> 등을 진행한 정세진 아나운서가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현주, 심야 라디오 <설레는 밤> 맡아



<9시 뉴스> <열린음악회>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이현주 아나운서가 이해성 아나운서의 퇴사로 새롭게 <설레는 밤>의 DJ를 맡아, 특유의 재치와 입담, 아름다운 목소리로 심야시간 대 청취자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

오승원, 코미디쇼 <스탠드업> 출연



5월 19일 KBS 2TV 코미디쇼 스탠드업에 오승원 아나운서가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2TV <생생정보> <영화가 좋다> 등에서 활약 중인 오승원 아나운서는 첫 등장부터 남다른 개그감을 뽐내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신임 박성제 사장 3월 2일 취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는 2월 22일 오후 1시부터 사장 후보 3인(박성제·박태경·홍순관) 면접을 통해 신임 사장을 발표했고, 임기는 2월 24일부터 시작되었다. 박성제 사장은 1993년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를 거쳤고, 2007년부터 2년간 전국연론노조 MBC본부장을 지냈다. 2012년 170일 파업 과정에서 해고되었다가 복직해 보도국장을 지냈다.

<선택 2020>에서 아나운서들 눈부신 활약

4.15 총선 개표방송인 <선택 2020>에서 화려한 화면 그래픽과 어우러진 아나운서들의 목소리가 주목을 받았다. 이재은, 강다솜 아나운서와 박연경, 김대호 아나운서가 주 진행자로 나섰고, 박창현, 차예린, 이진, 김정현, 이영은, 김민호, 엄주원, 안주희 아나운서는 선거 캐스터를 맡아 실시간 개표 상황을 속도감 있게 전달했다. 허일후 아나운서는 라디오 특집방송을 통해 총선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라디오 부분 개편, 허일후 김수지 김정현 DJ 투입



라디오 부분 개편에 따라 MBC 아나운서들이 DJ로 투입되었다. 허일후 아나운서는 가수 배기성과 함께 <싱글빙글쇼 배기성, 허일후입니다>(사진)의 DJ를 맡아 강석, 김혜영 콤비 못지않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김수지 아나운서는 <우연한 하루 김수지입니다>를 통해 매일 자정 청취자를 만나게 되었다. 김정현 아나운서는 <세상을 여는 아침 김정현입니다>의 진행자로 낙점되어 김초롱 아나운서의 뒤를 잇게 되었다.



최기환 유혜영 <2020 희망TV SBS> 진행



최기환

유혜영

최기환, 유혜영 아나운서가 1997년부터 시작된 SBS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 <희망TV SBS>의 MC를 맡아,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국내 취약 계층 아이들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기부'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나운서 유튜브 채널 '스브스아나운서' 개설



이병희 아나운서(사진)가 촬영부터 편집까지 맡아 SBS 아나운서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스브스아나운서' 채널에 개설 초반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병희 아나운서는 "평소 화면에 나오는 역할을 하다가 누군가를 촬영해서 편집을 해보니 많은 것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콘텐츠에 도전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유튜브 채널 <육아 연구소> 개설



이지민 아나운서가 <육아 연구소>라는 육아 콘텐츠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다. 육아 때문에 생기는 짜증이나 화, 스트레스를 다루는 '육아 연구소'. 상황별로 아이에게 대화하는 법을 살펴보는 '언어연구소'. 아이 교육과 관련된 '교육 연구소' 까지 육아에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실험하고 연구하는 채널이다.

'아나운싱의 정석' 34년 방송 생활 접다 수석 아나운서 박명규 6월 30일 정년퇴임

박명규 수석 아나운서가 2020년 6월 30일자로 정년퇴임을 맞는다. CBS는 보직 없는 시니어 전문직에게 대기자, 대PD, 수석 아나운서 칭호를 부여하고 있다. 그는 성균관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2월 CBS에 입사해 34년간, 종합 뉴스를 비롯해 야구를 제외한 각종 스포츠 중계와 대담, 시사, 종교, 음악 프로그램을 두루 섭렵했다. 4년 전부터 클래식 교회 음악 프로그램인 <내 영혼의 노래>를 제작·진행해왔으나 2주 전 그 프로그램에서도 손을 뗐다.



소회를 물었더니 "한마디로 시원섭섭하다."라며, "후배들이 잘 해나갈 것이다. 삶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 보람이라면 후배들이 아나운싱에 대해 물을 때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아나운싱의 정석'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시대별 흐름에 맞게 말하듯 자연스러워야 한다. 어렸을 때 선배님들을 뵈고 느꼈던 것처럼 말과 방송이 같은 것, 평상시에도 체화되어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는 예전에 KBS 김승한, MBC 차인태 아나운서의 뉴스를 많이 들었다.

박명규 아나운서는 입사 동기로 만나 혼인을 계기로 가톨릭평화방송으로 이직한 지승신 아나운서와 마라톤 등 취미 생활도 함께하며 복된 가정을 꾸리고 있다. 특히 풀, 나무, 숲에 관심이 많아 3, 4년 전부터 숲해설사,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숲치유 지도사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머잖아 그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숲에서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



봄 개편, 뉴스와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4월 27일 시행된 봄 개편을 맞아, 일부 뉴스와 프로그램 진행자가 교체되었다. 김준호 아나운서가 평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되는 메인 뉴스인 <뉴스 중심>과 토요일 오후 11시 55분에 방송되는 <OBS 인사이드 스토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OBS 인사이드 스토리>는 <OBS 초대석>에서 타이틀이 변경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홍원기 아나운서가 평일 오후 8시 20분에 방송되는 <월드뉴스>, 이상희 아나운서가 평일 오후 4시 20분에 방송되는 <뉴스 오늘>, 유영선 아나운서가 금요일 오전 8시 50분에 방송되는 옴부즈맨 프로그램, <미디어공감 좋은 TV>를 진행한다.



아나운서팀,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직접 제작 맡아

TBS 아나운서들이 TV와 라디오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데 나섰다. TBS FM(95.1MHz) <지금 우리는 새벽을 달리고>(매일 03:00~05:00)는 황원찬, 강지연 아나운서가 원고 작성부터 편집까지 직접 제작·진행을 맡았다. 또 아나운서팀이 만드는 TV <우리말 고운말>은 조현아, 손승희, 김상아 아나운서가 제작·진행하고 있다.

아나운서 유튜브 채널 <티다방>에 다양한 콘텐츠 선보여



TBS 아나운서들이 지난 2월 아나운서 유튜브 채널 <티다방>을 개설하고 직접 제작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먼저 최지은 아나운서(사진)를 주축으로 한 <그것을 아나 싶다>에서는 직접 거리로 나가 TBS 청취율을 취재해 관심을 모았다. 또 강지연 아나운서가 스포츠 전문가와 함께 하는 <축구쌀롱>에서는 K리그 경기를 심층 분석한다. 앞으로도 아나운서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업로드 할 예정이다.



2020년 봄 프로그램 개편 북방·음악 프로그램 강화, 유튜브 활용



극동방송 중앙사 및 전국 12개 지사가 지난 5월 18일 월요일 봄 정기 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에서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찬양 전문 프로그램 <싱싱 찬양> <음악이 꽃피는 밤> 등 음악 프로그램의 확대 편성에 중점을 두었다. 동시에 유튜브를 활용한 라디오 콘텐츠 제작을 시도, SNS를 통해 라디오를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재정난 겪는 해외 지사 돕기 위해 5월 8일 특별 모금 생방송 실시

50개국에서 124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세계적인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사인 극동방송이 지난 3월 코로나19로 확산세에서 국내 방역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한 특별 모금생방송에 이어 5월에도 해외 지사를 돕기 위한 특별 모금 생방송을 다시 한번 실시했다. '그들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인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해외 지사를 돕기 위한 모금 생방송을 5월 8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했다.



가톨릭평화방송 조직 개편

아나운서부서, 제작·아나운서부와 편성부로 나뉘어



기존의 아나운서부서가 라디오국 산하 제작·아나운서부서와 편성부로 재편되었다. 작년 연말 새로운 환경에서 전문 분야의 제작·진행 능력을 바탕으로 더욱 다채로운 방송과 콘텐츠를 만들며 역량을 키우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 인원은 뉴미디어 제작팀(유튜브 콘텐츠 제작)으로 이동해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콘텐츠 제작자 역량을 키우며 기존의 TV 프로그램 진행, 뉴스, 라디오 생방송 등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5월 25일부터 TV 매일 미사가 매일 오전 6시와 9시, 정오, 오후 6시, 4차례 방송되고, 소프라노 임선혜가 진행하는 <선율>(사진)을 신설하는 등 TV 프로그램이 새롭게 조정되었다.



초파일 맞아 프로그램 개편

오전 포교, 오후 음악 프로그램 집중 배치



5월 4일, BBS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개편이 있었다. 이번 봄 개편으로 오전 시간대에는 포교 프로그램이, 오후에는 음악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이효주 아나운서가 매일 정오에 방송되는 <이효주의 싱싱 라디오>(사진)를 맡았고, 김명석 아나운서는 평일 밤 10시 <밤의 창가에서>로 두 시간 동안 청취자들과 만난다. 오승진 아나운서는 평일 오전 11시 신행 상담 프로그램인 <지금은 수행시대>, 김민영 아나운서는 주말 오후 2시 <뮤직포유>로 청취자와 만나고 있다.



송민교 김하은 <사건반장>, 백다혜 <아침&> 진행



송민교

김하은

백다혜

송민교, 김하은 아나운서가 평일 오후 3시 30분에 방송되는 <사건반장>에 투입되었다. 송 아나운서는 '3대 반장'을 맡아 입사 후 처음으로 시사 프로그램을 단독 진행하고, 김하은

아나운서는 <사건상황실> 코너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백다혜 아나운서가 평일 오전 7시 <아침&>과 평일 오후 2시 <뉴스 ON>에서 사건·사고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입사한 백다혜·김하은 아나운서는 위 프로그램과 함께 주말 정오 <이 시각 뉴스룸>을 번갈아 진행하며 앵커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송민교 <골프의 모든 것> 강지영 <킵오프 K리그> 투입



강지영

송민교 아나운서가 3월 30일부터, 평일 오전 10시 JTBC 골프에서 방송되는 <골프의 모든 것> MC로 활약하고 있다. 코로나19로 PGA, LPGA, KPGA 투어가 중단되면서 경기 중계에 목마른 팬들을 위해서 기획한 <골프의 모든 것>은 지난 대회들을 돌아보면서 골프와 관련된 정보들까지 섭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강지영 아나운서가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프로 축구가 개막하며 신설된 본격 축구 정보 프로그램 <킵오프 K리그>에 투입되었다. <킵오프 K리그>는 6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JTBC골프&스포츠에서 방송된다. 강 아나운서는 지난해 열렸던 아시안컵 기간에 <아시안컵 투데이>를 진행한 바 있다.



시리즈로 풀어보는 한국어 ‘ㄴ·ㄹ’의 발음 - 4 합성어 형태의 음운법칙을 따르는 이름의 발음



모某 신문 2019년 6월 18일 기사제목, “검찰 총장 후보자는 ‘윤서결’ 일까, ‘윤성녘’ 일까?”를 요약한다.

“KBS는 6월 17일 9시 뉴스에서 앵커와 기자 모두 윤석열을 [윤성녘]로 읽었다. 하지만 KBS 2TV의 아침 8시 뉴스타임에서는 [윤서결]로 발음했다. 후보자의 이름은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尹錫悅이다. 기쁠 열悅은 ‘열’로 발음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자는 연음법칙을 적용해 [윤서결]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일부 언론 보도에서 본인의 이름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성녘]로 불러왔다고 한다. 친구들도 [성녘]로 부르기 때문에 이름은 집에서 부르는 대로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윤:성녘]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보통명사로 작열灼熱은 [장녘], 정열情熱은 [정녘]로 발음하고 있다.

1970년 김현옥 서울시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남해 출신 양택식梁鐸植 서울시장의 이름도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는 서울 지하철 건설과 강남 개발 사업을 추진했었다. 그의 이름은 방울 ‘탁’인데, 주변에서 ‘택식’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 ‘택식’으로 바꿨다고 한다. 그러나 방울 탁鐸을 쓰는 저널리스트 출신 교수로 장자莊子에

대한 연구가 깊은 김정탁金正鐸 교수는 ‘탁’으로 쓰고 있다.

6.25와 9.28 서울 수복의 첫 소식을 전한 원로 아나운서 위진록韋辰祿 대선배의 이름도 한국어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 LA 가데나에 사는 선배는 아나운서클럽회보 ‘우리말 다듬기’를 잘 읽고 계신다는 편지를 보내 주셨다.

윤석열 [윤:성녘] 레이건 [레이건 / 리건]
위진록 [위진록] 최윤락 [최윤낙]
선릉 [선능] 현인릉 [허:닌능]

그래서 e-메일로 존함尊銜에 대한 문의를 드렸더니 자세히 적어 보내셨다. 1950년 가을 미군 군용기로 일본 출장 시, 이름의 스펠링을 묻는 바람에 어려서부터 써오신 발음 [진녹]을 살려 ‘Wi, Jin Nok’ 이라 했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록]이 아니라 [진녹]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권의 책을 내셨지만, 올해 내신 <오래된 출장>은 조국을 떠나 70년간 일본과 미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인생 경험이 살아있는 글이다. 1928년생이신 선배님은 올 봄에도 수필집 출판과 후배택 혼사에 맞춰

한국을 방문하시면서 연부역강年富力強의 건강을 과시하셨다.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장 출신으로 음악에 조예가 깊어 음악 프로그램을 많이 맡았던 최윤락 아나운서도 어려서부터 [율락]이 아닌 [윤낙]으로 해왔다고 한다. 이렇게 고유명사인 이름은 단순한 연음이 아닌 합성어 형태의 음운법칙에 따라서 절음絶音을 한 뒤 ‘ㄴ’ 음을 첨가하는 경우가 많다. 테헤란로는 [테헤란노], 단군릉은 [단군능], 신라면은 [신나면]이다. 그래서 선릉과 현인릉의 발음은 [설릉] [허닐릉]이 아니라, [선능] [허:닌능]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한국어 ‘ㄴ·ㄹ’과는 다르지만, 아나운서 출신인 미국의 제40대 레이건(Ronald Reagan, 1911~2004)대통령도 캘리포니아 주지사 시절까지는 [리진]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레이건]으로 발음하도록 했다. Reagan의 ‘ea’는 [i:]와 [ei] 등으로 복수 발음이 가능하다. eat와 seat는 [i:]로 소리 나고, break, steak는 [ei]로 소리 난다. lead, read의 현재형은 [리:드], 과거는 [레드]로 발음한다.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예이다.

중국 우한발 코로나19로 세계가 들썩여도
세월은 제갈 길 착착 갈 차야합니다.
오월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으리오.
오월의 신부, 장미, 라일락 등등 오월에 대한 시도 많고 글도 많으니
오월은 생각만으로도 반짝이는 달이 맞나 봅니다.
오월의 첫날을 기분 좋게 만든 알한 가지.
천하태평 농법으로 옥수수 모종 서너 이랑 심고 들어오니,
안사람이 소주 한 잔과 봄 향기 가득한 쫄면 한 접시를 내 놓네요.
꿀깃꿀깃 쫄면이 입안 가득 퍼지는 이마음으로
오월한 달, 온갖 채소 심고 가꾸면서 사랑 넘치고 행복 넘치게 살립니다.
아울러 생의 동반자 여러 회원님들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하루빨리 코로나19를 물리치려면 손 자주 잘 씻고
외출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며 건강한 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월 초하루에 드리는 안부 편지

- 송석 松石 곽영신 (전 CBS)

| 알림 |

고맙습니다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금순

연회비

김상준(1월 7일 누락) 안중순 성경환
이종태 신영일 이지연 김현옥 조건진
어호선 전유벽 손석기 박영웅 이연영
김재익 김경숙 조길자 박종홍 송현식
김성경 윤성원 김수홍 박종세 이성화
고창근 김윤희

후원금

이계진(전 KBS) 60만 이종태(전 KBS) 20만 윤성원(전 KBS) 10만 원

축하합니다

강서은(전 KBS) 6월 21일 시업가와 혼인

조의를 표합니다.

김정일(SBS) 6월 8일 부인상
배덕환(전 KBS) 4월 4일 본인상
김성경(전 SBS) 4월 3일 부친상
문복순(전 KBS) 4월 2일 본인상
임성민(전 KBS) 3월 23일 부친상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성 5월 31일 KBS 퇴사
박명규 6월 30일 CBS 정년퇴임